

# ‘새로운’ 정책대상자로서 이주 외국인 여성의 인식 지형:

## 한국사회, 한국인,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원 숙 연\*

정 하 나\*\*

Ⅰ.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Ⅳ. 실증분석
Ⅱ. 외국인의 유입 및 ‘외국인 여성’의 현실	Ⅴ. 실증결과 및 논의: 집단 별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Ⅲ. ‘외국인 여성’이 갖는 인식의 지형: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Ⅵ. 결론: 연구의 함의

###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정책대상자로 등장한 이주 외국인 여성의 인식이 동질적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질문이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나라 이주 외국인 여성 집단 내부에는 하위집단이 존재하고, 각각의 하위집단은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다른 위치는 다른 인식으로 이어지는 내부적 변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이주 외국인 여성을 거주목적, 거주기간, 혼인여부, 자녀유무, 출신국가, 한국국적 취득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하위 집단이 느끼는 한국에서의 자원스트레스, 한국인의 차별인식 및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 그리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이주 외국인 여성 중 국적이 있는 집단이 국적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자원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적이 있는 경우, 한국 및 한국에서의 (경제적)삶에 대한 기대가 높고, 자신의 삶을 다수집단인 ‘한국 여성’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자원스트레스와는 반대로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적이 있는 경우, 한국사회의 차별정도를 낮게 인식하였다. 이는 자신을 ‘준 한국인’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내집단 선호(ingroup preference)와 기대감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

\* 책임 및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sywon@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hana5409@hanmail.net)

논문접수일(2014.1.15), 수정일(2014.3.5), 게재확정일(2014.3.13)

을 경우, 한국과 한국에서의 차별에 더 민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이주 외국인 여성 중 기혼자로서 자녀가 있는 여성 및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은 외국인 정책 중 다문화 모형과 차별·배제 모형을 동시에 선호하는 모순적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모순은 다른 이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러나 한국인에 대해서는 '이주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 이중정체성(dual identity)이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이주 외국인 여성, 자원스트레스, 차별인식,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정책】

## I.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서구 이민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다인종·다문화적 인구 구성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의 무풍지대가 아니어서 인종, 민족, 문화적인 다양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오랫동안 단일민족·단일문화를 당연시해 왔던, 그리고 '순혈'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건재한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인종적 다양성'의 증가는 상당히 도전적인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들은 '인종적 다양성'이라는 도전적인 흐름을 다수집단인 우리 국민이 얼마나 수용하는지(황정미 외, 2007; 윤상우·김상돈, 2010; 송미영, 2010),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인태정, 2009; 서운석, 2011; 원숙연, 2011a), 이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경향성은 어떠한지(김상학, 2004; 박수미 외, 2004; 김금미, 2010; 전영자·전예화, 2010; 윤인진·송영호, 2011), 더 나아가 인종적 다양성의 수용범위를 넓히는 대안은 무엇인지(김남국, 2005; 황정미 외, 2007; 김비환, 2007; 고숙희, 2008)등에 주목해 왔다. 그 대부분이 다수집단(내국인)의 관점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조망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다수집단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연구가 갖는 의미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소수집단인 이주 외국인의 관점에서 한국·한국인, 그리고 외국인 정책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이다. 왜냐하면 다수집단의 인식과 소수집단의 인식 모두가 조망될 때, 보다 균형있는 현실인식이 가능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소수집단인 '이주 외국인' 그 중에서도 '외국인 여성',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인식에 주목한다. 외국인 중 이들에게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 사실, 이주 외국인 집단 중 결혼이주여성(10.2%)은 외국인 근로자(36.0%)에 비해 그 규모는 작지만, 그 사회적 비중과 의미는 작지 않다.<sup>1)</sup> 먼저, 우

1) 여기서의 외국인 비율은 국적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입국하여 거주중인 외국인을 말한다. 또한 결혼이

리사회에 존재하는 ‘피’에 대한 집착에 따라 순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준’한국인을 생산해내는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외국인 집단과는 다른 위치가 부여된다(설동훈 외, 2006; 설동훈·윤홍식, 2008; 원서진·송인욱, 2011, 박순희, 2011). 이처럼 다른 위치는 이주 외국인 관련 정책의 대부분이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적극적인 정책대상으로 편입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원숙연, 2008; 김선미, 2009; 박진경·원숙연, 2010; 원숙연, 2012). 즉, 결혼이주여성은 과거와는 다른,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정책대상의 부상은 관련 부처에게는 이들의 현실과 인식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배가(倍加)한다. 왜냐하면 정책 대상에 대한 이해의 결여는 정책의 형식주의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새로운 정책대상인 결혼이주 여성은 어떤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들은 한국인, 한국사회 그리고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러한 인식은 집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단선적으로 구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주 외국인 여성을 집단화하여, 집단별로 이들이 한국을, 한국인을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과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구성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한마디로, 한국인 및 한국사회,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외국인 정책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이주 외국인 여성 집단 간 내적변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러한 구조화가 내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그들의 시각을 통해 조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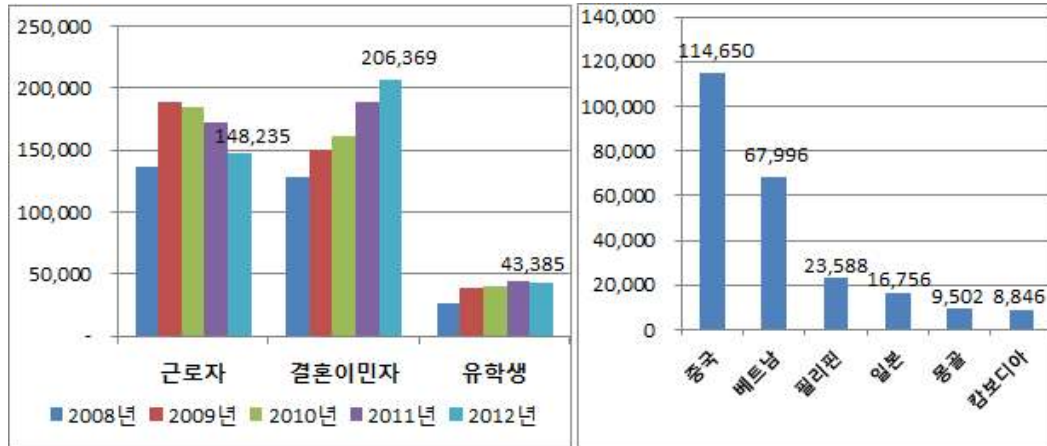
## Ⅱ. 외국인의 유입 및 ‘외국인 여성’의 현실

1993년에 도입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의 유입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대된 것은 소위 결혼이주여성으로 통칭되는 외국인 여성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

주자(남성, 여성 포함)의 자녀가 전체 외국인 중 13.2%를 차지하고 있어, 양자를 합할 경우 양적인 비중 역시 적지 않다(안전행정부 2013).

〈그림 1〉 거주목적별, 출신국가별 외국인 여성 수



자료: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행정안전부)을 근거로 연구자 재구성<sup>2)</sup>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여성 중 결혼이민자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간 외국인 여성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은 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 현재 결혼이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근로자의 수는 2009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들의 출신국가는 여전히 중국이 가장 많으며 베트남과 필리핀, 일본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은 이주의 여성화(feminized migration)로 논의된다. 이는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성별 노동분업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 출신의 여성이주를 통해 지속되거나 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김민정 외, 2006:160, 김이선 외, 2006:18에서 재인용). 현재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이주의 형태는 가사노동, 돌봄노동, 제조업과 같은 공장노동, 성산업관련 및 결혼을 통한 이주이다(Macklin, 1999; 김경주, 2010:147에서 재인용; cf. Hochschild, 2002; 김이선 외, 2006:18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이주가 남성노동자 중심의 제조업 등에서 시작되었고, 여성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안전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결혼을 통한 이주가 주를 이루었다(김경주, 2010). 특히, 농촌총각에 대한 결혼기피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중적 처방으로 강화된 측면도 없지 않다(원숙연, 2008).

이처럼 확대일로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의 관심은 주로 다문화 가족의 갈등과 이주여성의 언어·문화 등의 적응 방안(김현미, 2006; 김이선 외, 2006; 구차순, 2007; 설동훈

2) 거주목적별 분류에서 혼인귀화자를 결혼이민자의 수에 포함시켰으며(국적미취득자는 거주목적별 분리 통계 자료를 그대로 이용), 출신국가별 통계는 국적미취득자와 국적취득자 항목에서 국가별 통계를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외, 2006; 설동훈·윤홍식, 2008), 인권보호(홍성필, 2007; 황미혜, 2011) 등의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이주 초기 사회문화적으로 생경한 국가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다소 시혜적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심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고 견인한 측면도 인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주의 역사가 지속될수록, 외국인 여성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시각을 통해 한국을, 한국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함으로써, 이들의 선호나 인식과는 무관하게 하향식(top down)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다(cf. 김혜순, 2006; 원숙연, 2008; 차용호, 2009; 박진경·원숙연, 2010; 이병렬·김희자, 2011). 그러나 외국인 여성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향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가지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내용과 선호를 개진할 수 있는 주체적인 집단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을, 한국인을, 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어떤 외국인 정책을 선호하는가를, 집단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밝히고자 한다.

### Ⅲ. ‘외국인 여성’이 갖는 인식의 지형: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 1. 연구의 개념틀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이주 외국인 여성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알아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식은 일종의 태도로서, 태도는 인지와 감정으로 구성된다(Berkman & Neider, 1987). 인지는 특정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근거한 타산적이고 도구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감정은 호불호, 유쾌, 불쾌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의미한다(Larzarus, 1984; Zajonc, 1984, 원숙연, 2012). 이처럼 인식은 다차원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수많은 요소 중 어떤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인종적 소수자의 인식으로 중요하게 지목되는 몇 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는데(Espenshade, T et al., 1996; Esses, V.M et al., 2001; Breugeman & Vijver, 2004; 김상학,

2004; 원숙연, 2011b) 첫째, 인지적 차원으로 자원스트레스와 한국인의 차별인식에 대한 평가, 둘째, 감정적 차원으로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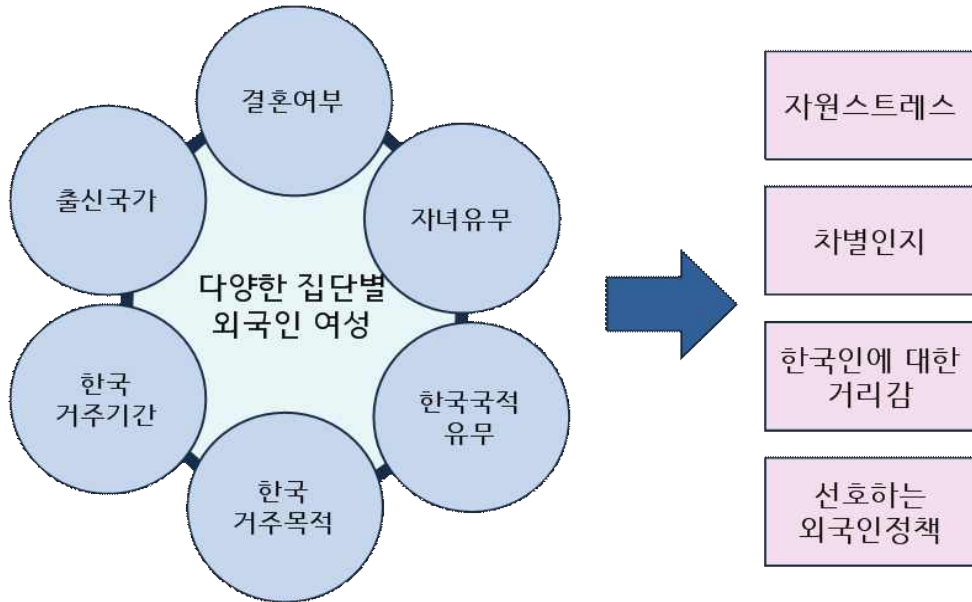
먼저 자원스트레스의 경우, 이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겪어야 할 생활과 역할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언어나 문화 등의 차이로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고 주류사회의 차별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더욱이 여성이주자는 ‘여성’이라는 이유가 또 다른 어려움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특히 결혼으로 한국에 오는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로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출신국에 비해 잘사는 나라 한국은 자신들과 가족들의 경제적 지원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윤형숙, 2004). 이에 따라, 자원스트레스로 통칭되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둘째, 한국인으로부터 느끼는 차별인식과 거리감이다. 외국인인 인종적 소수자로서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 인종이라는 작위적인 차별의 분류체계가 말해주듯이 차별의 첫 출발점은 차이이며, 이러한 차이를 가진 집단은 주류집단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유명기, 2004). 차별의 인지는 한국인에게 느끼는 거리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여성 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경우 사회적 거리감이 커지는 것처럼(전영자·전예화, 2010), 외국인의 경우에도 한국사회가 차별이 있는 사회라고 느낄수록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주 외국인 여성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차별인식과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이주 외국인 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한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고자 한다. 기존의 외국인 정책 관련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황정미 외, 2007; 윤상우·김상돈, 2010; 송미영, 2010; 윤인진·송영호, 2011; 원숙연, 2011a). 물론 그러한 연구가 갖는 의미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들 논의의 대부분이 주류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제시된 것이지, 그러한 정책을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외국인 여성들의 요구나 선호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들이 선호하는 정책내용은 무엇인지, 선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기반으로, 외국인 여성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특히, 외국인 여성 집단을 다양한 기준(결혼여부, 자녀유무, 출신국가, 한국국적유무, 거주기간 및 목적)으로 범주화하여, 인식의 내적 변이에 초점을 맞춘다.

〈그림 2〉 개념들



## 2. 구성요소

### 1) 자원스트레스

자원스트레스란 ‘사회 안에서 원하는 자원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인식으로’(Esses et al.,2001), 경쟁적인 외부집단이 존재할 경우 자원스트레스는 높아진다. 사회의 모든 집단이 자원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지만, 인종적 다양성과 관련하여서는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주류집단은 인종적 소수자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적 자원을 공유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자신들에게 돌아갈 자원이 줄어든다는 불안감을 근거로 자원스트레스를 느낀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Esses et al.,2001). 경제적·사회적으로 주변화된 계층에서 이민자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지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배타적 태도가 더욱 노골화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Espenshade, T & Hempsted, K, 1996; Esses et al., 2001; Jackson et al.,2001; 윤상우 외, 2010; 원숙연, 2011b). 반면, 소수집단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제한된 자원에의 접근이 주를 이룬다. 자원을 구성하는 요소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자원 등으로 다양하지만 소수집단의 경우, 주류사회의 구성원이 받는 자원스트레스와 달리 주로 경제적인 자원(소득중심)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적인 자원에의 접근이 제한될수록, 소수집단의 경우, 주류 집단과의 격차에서 오는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이러한 자원스트레스는 소수집단의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특히, 집단의 속성에 따라(출신국가, 체류목적 및 기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2) 한국사회의 차별인식과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

편견은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이며,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차별이라 한다(김혜숙, 1999).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것이다.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차별상황에 대한 전형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상황이 되면 차별을 강하게 지각하게 된다(Quinton & Major, 1997; 박수미 외, 2004:17에서 재인용). 이러한 편견과 차별은 모든 사회 집단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예: 지역, 성별, 학력 등등), 인종적 다양성의 확대에 따라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이주 외국인 여성이 한국사회가 갖는 편견 및 차별의 경향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편견이나 차별과 관련된 역동적인 차원이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이다(김혜숙, 1999). 개인과 집단사이에 친밀함의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거리감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감적 이해(sympathetic understanding)의 정도로 개념화된다(Bogardus, 1933; 윤인진·송영호, 2007:863에서 재인용).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차별인지와 사회적 거리감은 연결되어 있다. 차별을 느낄수록 거리감이 커지고, 거리감은 차별인지를 강화한다. 주류 집단의 사회적 거리감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되며(김상학, 2004), 소수집단은 자신이 인지하는 차별이나 편견에 따라 주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달라진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할 때, 차별인지와 사회적 거리감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가 주류집단으로서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갖는 편견이나 차별, 그리고 외국인 집단에 따라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에 집중하였다면(김상학, 2004; 박수미 외, 2004; 윤인진·송영호, 2007; 전영자·전예화, 2010), 본 연구는 그 방향을 달리한다. 즉 이주 외국인 여성의 시각을 통해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갖는 편견과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외국인 여성 스스로가 한국인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의 지형이 어떠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여성집단의 입장에서 주류집단으로서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갖는 차별의식을 역추적하고,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을 파악하는 것이다.



### 3)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

인종적 다양성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외국인 정책이라고 할 때(원숙연, 2012), 그 내용과 방향이 외국인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종적 다양성의 확대가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모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차별·배제모형으로 외국인을 3D 업종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서만 받아들이고 복지혜택이나 국적·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등의 사회적·정치적 영역에는 제한을 두는 것으로, 국가가 원하지 않는 이민자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유형이다(박진경·원숙연, 2010). 주류사회가 원하지 않는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정기간이나 특정집단에 따라 이 모형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Martiniello, 1997; 윤진 역, 2002; Castle & miller, 2003; 원숙연, 2012:250에서 재인용).

두 번째는 동화모형이다. 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문화가 아닌 주류 사회의 핵심가치에 순응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Alexander, 2001; Hartmann and Geteis, 2005; 한승준, 2008; 원숙연, 2012). 이러한 정책방향에 기반을 둔 정부는 이주 외국인들의 주류 언어 습득을 돕고 이민자 자녀들의 정규 학교 취학을 지원한다. 또한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에서 인종차별금지 등을 제도화해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한다(Martiniello, 1997; 윤진 역, 2002; Castle & miller, 2003; 박진경·원숙연, 2010).

세 번째는 다문화 모형으로, 동화가 아닌 공존과 공생을 목적으로 한다(Martiniello, 1997; 윤진 역, 2002; Castle & miller, 2003; 한승준, 2008; 원숙연, 2012). 이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언어, 문화, 민족, 종교 등 이민자의 다양한 배경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더욱이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자원의 배분으로까지 그 지평을 확대하는데, 장기거주자의 선거권 부여, 이중국적 허용 및 이민자 자녀에 대한 선거권 부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IV. 실증분석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조사시점인 2013년 기준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서울시민의 3.9%), 출신국가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안전행정부, 2013).

연구목적에 따라, 이주 외국인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자원스트레스,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인식,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의 언어로 번역하여 작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를 서울시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 여성과 그 지인(知人)을 대상으로 한 ‘눈덩이 포집(snowballing)’ 방식으로 기관 23곳에 10부씩 배포하였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기관의 속성상, 결혼이주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이들이 과대대표 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외국인 여성 집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소재 대학 6곳에 20부씩 추가 설문을 배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350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80부가 수거되었으며(수거율:80%),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220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이주 외국인 여성의 인식에 있어서 집단 내 다양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예: 국적유무, 자녀유무, 거주기간, 출신국가, 한국에서 거주하게 된 목적(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에 따라 하위집단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국적 유무에 따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국적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여성과는 한국인에 대한 인식과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를 개연성이 높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한국에서의 삶이 자신의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심까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집단과는 인식의 지형이 다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기간, 이주 전 출신국가, 거주목적(결혼, 취업, 유학 등)의 차이는 인식의 내적변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집단구분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집단을 분리한 표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구성

구분		표본 수	구분		표본 수
연령	20대	112(50.9%)	한국거주 기간	1년미만	30(13.6%)
	30대	73(33.2%)		1년이상 3년미만	56(25.5%)
	40대 이상	35(15.9%)		3년이상 5년미만	57(25.9%)
소득	100만원 미만	56(27.1%)		5년이상10년미만	53(24.1%)
	101~300만원	120(58%)		10년이상	24(10.9%)
	301만원 이상	31(14.9%)	출신국가	중국계	42(19.0%)
학력	고졸이하	93(42.5%)		몽골	56(25.3%)
	전문대졸	39(17.8%)		베트남	53(24.0%)
	대졸	65(29.7%)		필리핀	61(27.6%)
	대학원졸 이상	22(10.0%)	기타	8(4.1%)	
결혼여부	기혼	167(78.4%)	한국거주 목적	학업	53(24.1%)
	미혼	46(21.6%)		취업	22(10.0%)
자녀	있음	147(66.8%)		한국국적	결혼
	없음	73(33.2%)	기타		17(7.7%)
				있음	71(32.3%)
				없음	149(67.7%)

\*퍼센트는 유효 퍼센트임.

## 2. 측정도구 및 평가

본 연구는 서울 거주 외국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원스트레스, 한국인의 차별인식,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한 설문지는 사회적 다양성을 먼저 경험한 국가에서 개발되어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척도와 국내의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자원스트레스는 Espenshade & Hempstead(1996), Esses, et. al.(2001) 및 원숙연(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식 인식과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난 5년 동안의 경제적 여건> 을 ‘매우 나빴다-매우 좋았다’의 5점 척도로, <한국가정의 평균 소득에 비해 자신의 가정의 소득 수준>을 ‘매우 낮다-매우 높다’의 5점 척도로,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차별인지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GS)에서 오랜 기간 한국인을 대상으로 활용한 문항을

외국인들에게 맞게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기회, 승진이나 승급에서의 차별, 법의 평등한 적용, 소득의 공정한 분배, 지역·출신 등에서의 차별정도를 <직장에서의 차별>, <소득 차별>, <지역·출신에 따른 차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가장 대표적인 척도인 보가더스 척도 7개 중 가장 먼 거리인 같은 동네에 사는 것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인 자신이나 자녀의 배우자까지 허용하는 것까지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같은 동네에 사는 것>, <직장에서 동료로 일하는 것>, <직장 상사로 있는 것>, <친척이 결혼하는 것>, <자신이나 자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한 감정을 ‘매우 싫다-매우 좋다’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한편, 외국인정책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2차외국인 기본계획(2012)」을 바탕으로 차별배제-동화-다문화 모형에 따라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각각의 정책수단에 대한 선호 및 필요성을 ‘전혀 필요하지 않다-매우 필요하다’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먼저, 차별·배제는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입국 전 외국인 근로자 교육강화>, <외국인에 대한 정보관리>, <국적취득 자격 강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동화는 <한국어 교육 등 사회교육지원>,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한국 사회 내의 다문화 교육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모형은 <이민자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및 재정지원>,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이중국적 허용>, <고용에 있어서의 외국인력에 대한 우대조치>로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척도가 내적일관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  $\alpha$  값을 기준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회의 차별인지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내적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에도, 기준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사회의 차별인식의 경우, .58로 기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구성되어 외국인으로서 이해가 용이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분석을 진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및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 및 신뢰도

변수	조사항목	cronbach $\alpha$	
자원스트레스	지난 5년동안 귀택의 경제적 사정	.642	
	한국 가정에 비해 귀택의 평균소득		
	귀택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한국사회의 차별인식	한국사회는 승진이나 승급 시 평등한 기회 보장	.580	
	한국사회에서 법은 평등하게 적용됨		
	한국사회에서 지역, 출신에 따른 차별 존재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	같은 동네에 사는 것	.737	
	직장에서 동료로 일하는 것		
	직장의 상사로 있는 것		
	친척이 결혼하는 것		
	자신이나 자녀가 결혼하는 것		
외국인 정책	차별 및 배제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및 본국 즉각 소환	.806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입국전 외국인 근로자 교육 강화	
		외국인에 대한 정보관리 강화	
		외국인 국적취득시 자격 강화	
	동화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 지원	.83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한국 사회내의 다문화 교육 확대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다문화	이민자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 및 재정지원	.794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이중국적 허용	
고용에 있어 외국인력에 대한 우대조치			

## V. 실증결과 및 논의 : 집단 별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 1. 자원스트레스

외국인 여성집단이 경험하는 자원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척도는 가계소득일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의 가계소득이 어떠했는지, 한국 가정의 평균소득에 비해 소득수준이 어떠한지, 그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표 3>참고). 그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자원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원스트레스의 집단별 차이이다. <표 3>에 따르면, 다른 변수에 따

른 자원스트레스의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데 반해, 국적유무와 출신국가에 따라 자원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몇 가지 흥미로운 논제를 제공한다.

〈표 3〉 자원스트레스의 집단별 차이

구분		자원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F-value
연령	20대	3.1339	.58631	.340
	30대	3.0548	.67303	
	40대 이상	3.1048	.71753	
소득	100만원 미만	2.9851 a)	.53208	7.530**
	101~300만원	3.0042 a)	.64548	
	300만원 초과	3.4570 b)	.58368	
학력	고졸이하	3.0179	.66597	1.500
	전문대졸	3.0470	.54471	
	대졸	3.1974	.62144	
	대학원졸 이상	3.2424	.66014	
한국 거주기간	1년미만	3.2611	.55997	2.281
	1년이상 3년미만	3.1548	.48394	
	3년이상 5년미만	3.1930	.63682	
	5년이상10년미만	2.9277	.75214	
	10년이상	2.9444	.67864	
출신국가	중국계	2.9365 a)	.79031	6.720***
	몽골	3.1131 b)	.55515	
	베트남	2.8679 a)	.52943	
	필리핀	3.3443 b)	.53651	
	기타	3.5926 b)	.74120	
한국 거주목적	학업	3.0880	.55702	.460
	취업	3.0100	.69510	
	결혼	3.1720	.67157	
	기타	3.0641	.51051	
결혼여부	미혼	3.1522	.52918	1.653
	기혼	3.0729	.66252	
자녀	있음	3.0816	.65960	.658
	없음	3.1416	.58444	
한국국적	있음	2.9249	.70474	2.942**
	없음	3.1902	.58382	

\*p<.05, \*\*p<.01, \*\*\*p<.001(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스트레스가 낮은것임) 사후분석(Scheffé):a<b

먼저,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원스트레스가 미취득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sup>3)</sup> 첫째, 기대이론의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다. 자원스트레스는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댓값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가용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자원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고, 반대로 객관적으로 가용자원이 부족함에도 주관적인 자원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이 미취득자보다 자원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을 한국에 대한 기대와 연결해 볼 수 있다. 국적취득절차와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고,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조건이 많기 때문에 국적취득자 중 상당수가 결혼이주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잘 알려진 것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가 저개발국에서 일종의 ‘코리아드림’을 가지고 온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국적미취득자는 체류목적이 방문이나 학업일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한국에 대한 기대가 결혼이주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결국, 국적취득자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가 높는데 현실적인 삶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만큼 주관적 자원스트레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혼이주 여성의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윤형숙, 2004; 한건수·설동훈, 2006; 전기택 외, 2013), 이해 가능한 결과이다. 두 번째, 비슷한 맥락에서 준거집단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준거집단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태도나 행동을 형성하는데 기준이 되는 집단을 말한다(박경구오하라, 2008). 이들 준거집단은 개인의 행동이나 믿음의 기준을 제공하는 규범적인 역할과 함께 타인(의 상황)과 자신을 대비시키는 비교기준으로 기능한다(Dodd, 1982; 박경구오하라, 2008). 이를 적용할 때 국적을 취득한 이주 외국인 여성은 자신의 준거집단을 다른 외국인 여성이 아닌 한국여성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이는 자신이 사용가능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cf. Espenshade, T & Hempsted, K, 1996; Esses et al., 2001; Jackson et al., 2001). 세 번째, 체류기간도 일정부분 작용할 수 있다.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취득의 조건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되어있다(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체류 초반에는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고 정착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5년 이상 체류하고 국적을 취득할 정도라면 한국 및 한국에서의 (경제적)삶에 대한 기대가 국적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정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제적)삶과 한국인들의 (경제적)삶을 비교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 박탈감은 높은 수준의 자원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된다.

3) 국적취득자와 국적미취득자간 인식차이에 대한 설명은 본 연구의 심사자 중 한 분의 조언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결과는 출신국에 따른 자원스트레스이다. <표 3>에 따르면 베트남과 중국 출신이 다른 집단보다 자원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축적되어야 하나, 한 가지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베트남은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일정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한국을 일시적으로 다녀가는 방문자로서보다는 정주민으로서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주관적 기대도 높고, 자신들의 삶을 한국인들의 삶에 투영해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집단 간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회주의적 배분에 보다 익숙해져 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삶에서 오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일정부분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cf. 김현미, 2010).<sup>4)</sup>

## 2. 한국사회에서의 차별인지와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

### 1) 한국사회의 차별정도

차별적 대우란 한 개인이 특정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전영평, 2010). 저개발국에서 온 여성들은 그들이 가진 개인적 특성이 모두 무시된 채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싼 임금으로 한국에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외국인’ 등의 집단으로 묶여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은 개인적인 성향에서도 기인하겠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특정 사회가 차별에 대해 어떠한 경향성을 갖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편견과 차별을 비교적 많이 경험하게 될 소수자로서 외국인 여성이 한국사회의 차별정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학력, 결혼여부, 자녀유무, 한국국적 유무, 출신국가, 한국거주 목적에 따라 한국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학력의 경우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 집단에서 한국사회가 차별적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고, 평등과 같은 진보적 이념에 대한 노출정도가 높기 때문에(원숙연, 2011a), 학력과 차별인식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이해가능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변수는 이들이 이주 외국인 여성이라는 점이다. 학력이 높다는 것은 이들이 본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

4) 심사자 중 한 분이 지적한 것처럼, 몽골도 베트남이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0년 3월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를 탈피한 대통령중심제의 중립·비동맹국가로 전환하였다. 또한 2000년에 들어와 의회와 내각의 권력을 대폭 강화한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등 정치체제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따라서 중국과 베트남과는 상이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77521&mobile&cid=40942&categoryId=33371>; 2014.2월 27일 검색)



위를 점했을 개연성과 연결된다. 다시 말해 이들이 한국으로 ‘이주’함으로써, 자신들이 본국에서 누렸던(또는 누릴 가능성이 있었던) 사회적 지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수 있다. 즉, 학력이 낮은 경우는 본국에서나 한국으로 이주했을 때나 사회적인 차별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학력이 높은 경우는 본국에서의 위치와 한국에서의 위치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cf. 김희순, 2010). 결국,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비판의식 및 평등이념에 대한 노출이 많다는 점과 이주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하락정도가 높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표 4〉 한국사회 차별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차이

구분		차별인지		
		평균	표준편차	F값
연령	20대	3.1488	.71006	.003
	30대	3.1416	.78157	
	40대 이상	3.1524	.61220	
소득	100만원 미만	3.0774	.70494	.084
	101~300만원	3.1250	.69285	
	300만원 초과	3.1075	.84058	
학력	고졸이하	3.2832 c)	.07005	6.222***
	전문대졸	3.3846 c)	.11906	
	대졸	2.9487 b)	.08373	
	대학원졸 이상	2.8030 a)	.16362	
한국 거주기간	1년미만	3.0889	.59328	.500
	1년이상 3년미만	3.0536	.76218	
	3년이상 5년미만	3.1871	.75071	
	5년이상10년미만	3.2138	.79015	
	10년이상	3.2222	.55313	
출신국가	중국계	2.8254 a)	.79031	6.698***
	몽골	2.9464 a)	.73244	
	베트남	3.3522 b)	.65833	
	필리핀	3.3989 b)	.62009	
	기타	3.1481 b)	.44444	
한국 거주목적	학업	2.8742 a)	.62780	5.016**
	취업	2.9848 a)	.83873	
	결혼	3.2943 b)	.71800	
	기타	3.0980 a)	.53703	
결혼여부	미혼	2.8623	.57339	2.085**
	기혼	3.2216	.74321	
자녀	있음	3.2857	.71407	-4.225***
	없음	2.8676	.64248	
한국국적	있음	3.3052	.59294	-2.352*
	없음	3.0828	.77101	

\*p<.05, \*\*p<.01, \*\*\*p<.001(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인지가 낮은것임) 사후분석(Scheffé):a<b<c

다음으로 한국에서의 정주 가능성과 연관된 혼인, 자녀, 한국국적, 한국거주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혼을 목적으로 이민 온 여성, 자녀가 있는 기혼자, 한국국적 취득자는 차별인지가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여성, 자녀가 없는 미혼자, 한국국적 미취득자는 차별인지가 높았다. 전자는 한국에서의 거주가 장기적이고 자신을 비롯한 자녀까지 모두 한국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후자는 한국에서의 거주가 일시적 혹은 단기적이어서 한국사회의 외집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차별에 대해 보다 민감할 개연성이 있다. 여기에 또 하나 설명요인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 여성,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적이 있는 여성은 자신들을 ‘준 한국인’으로 자리매김(positioning)할 가능성이 있다(cf. 원숙연, 2008). 이 경우, 자신을 외국인으로서가 아닌 내국인으로 생각하려는 무의식이 작용하게 되고, 내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내집단 선호’(in-group preference)가 일정부분 개입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외국인 관련 정책이 모든 외국인 집단을 같은 정도로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 여성과 그 자녀와 국적취득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때문에, 정책혜택의 경험이 일정부분 작용할 수 있다(원숙연, 2008; 2011a, 2012).

이러한 설명은 출신국가별로 차별인지에서 나타난 차이도 어느 정도 설명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과 필리핀의 차별인지가 낮았고, 중국과 몽골의 차별인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출신국가별 설문대상자의 분포와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 중 베트남과 필리핀이 결혼이민자가 많았고, 중국계와 몽골의 경우는 학생이나 근로자가 많았다.<sup>5)</sup> 이러한 표본의 차이를 감안할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차별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혼자, 유자녀, 한국국적 취득자가 베트남과 필리핀계에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집단별 특성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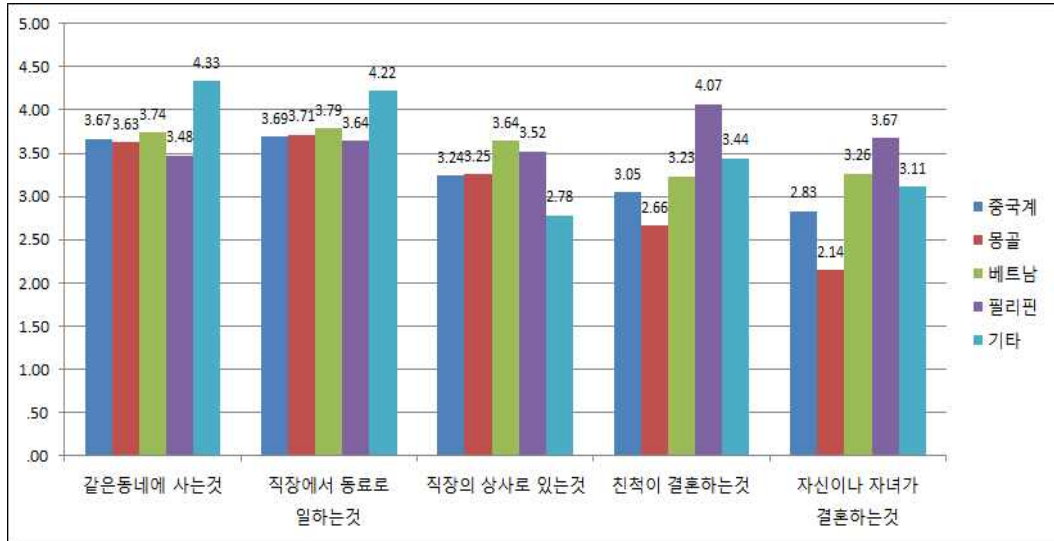
## 2)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1) 전반적인 거리감

외국인 여성집단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았다. 사실, 기존의 연구는 한국인이 외국인 집단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을 주로 측정하였다면(cf. 김상학, 2004; 전영자·전예화, 2009), 본 연구는 외국인 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5)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의 출신국가 분포에 따르면 베트남과 필리핀에 결혼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실제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중이 중국(39.4%), 베트남(30.6%), 일본(8.4%), 필리핀(7.6%)의 순인 것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출입국 통계연보, 2013). 이러한 차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이나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림 2>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 : 출신국가 별



먼저, 전반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한국인에게 느끼는 거리감의 지형을 파악해보았다. <그림 2>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관여하는 정도가 적은, 그래서 쉽게 수용가능한 이웃이나 직장동료에 대한 거리감이 결혼상대자(자신 또는 친척의)보다는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그 양상은 출신국가별로 다양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분포가 많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이다. 본 연구 대상의 분포를 보면, 중국계나 몽골출신은 학생 및 근로자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웃이나 직장에서의 동료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결혼대상으로서는 상당한 거리감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필리핀은 조사대상자 중 결혼 이민자가 많아 친척,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웃이나 직장 동료로 지내는 것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들의 현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둘째, 주목을 끄는 결과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의 차이이다. 모두 결혼 이주 여성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여성이 베트남 여성에 비해 결혼에 있어서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는 결혼이민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차원으로 장려된 이주는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에 대한 저항감을 줄였다(Odine de Guzman, 2008). 또한, 한국 결혼이주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

어 한국에 대한 적응이 상대적으로 쉬워진 측면, 성당을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 등이 한국에서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다(김민정, 2011). 이에 반해 베트남의 경우, 한국인과의 결혼이주의 역사가 비교적 일천하고, 악덕 중개업자를 통한 잘못된 결혼의 예나 불행한 결말 등 결혼 이주를 둘러싼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김현미, 2009). 몽골출신 여성이 자신이나 자녀의 결혼상대로 한국인에 대해 갖는 높은 거리감도 일정부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결과는 <기타>로 분류된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에게 보이는 거리감의 지형이다. 같은 동네에 살거나 직장동료로서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다른 외국인 여성 집단에 비해 월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대부분이 주로 선진국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편인테도 불구하고, 선진국 특히 영어권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용인의 범위가 넓고 상대적으로 친절한 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원숙연, 2011a), 이들이 비록 결혼상대자로 한국인을 생각하지는 않아도, 가까운 이웃이나 동료로서 한국인을 받아들이는 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인다.

## (2)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집단별 차이

이상의 전반적인 거리감의 차이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의 집단별 차이는 차별인지의 측정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사회에서의 차별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는 대학원 졸 이상의 고학력집단이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높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차별인지가 높을수록 거리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표 5〉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집단별 차이

구분		사회적 거리감		
		평균	표준편차	F값
연령	20대	3.3286	.61210	1.907
	30대	3.4877	.71413	
	40대 이상	3.5200	.61968	
소득	100만원 미만	3.3393	.52282	1.064
	101~300만원	3.4400	.71507	
	300만원 초과	3.2710	.53802	
학력	고졸이하	3.5312 b)	.65375	4.142**
	전문대졸	3.4462 b)	.54765	
	대졸	3.3323 b)	.70203	
	대학원졸 이상	3.0273 a)	.47528	
한국 거주기간	1년미만	3.2133	.55069	2.780
	1년이상 3년미만	3.2679	.59486	
	3년이상 5년미만	3.4105	.70652	
	5년이상10년미만	3.5887	.65779	
	10년이상	3.5500	.56337	
출신국가	중국계	3.2952 a)	.61245	7.996***
	몽골	3.0786 a)	.57040	
	베트남	3.5283 a)	.62646	
	필리핀	3.6754 b)	.61228	
	기타	3.5778 b)	.77746	
한국 거주목적	학업	3.0755 a)	.05500	9.859***
	취업	3.2636 a)	.15141	
	결혼	3.5969 b)	.05742	
	기타	3.2706 b)	.18466	
결혼여부	미혼	3.0826	.42285	16.806***
	기혼	3.4946	.67905	
자녀	있음	3.5156	.66659	-3.043**
	없음	3.2055	.57055	
한국국적	있음	3.6592	.60700	-3.975***
	없음	3.2980	.64078	

\*05, \*\*p<.01, \*\*\*p<.001(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낮음) 사후분석(Scheffe):a<b

또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한국국적 취득자가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 즉 이들은 다른 이주 여성에 비해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에 보다 가깝게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 집단이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비교적 덜 느낀다고 하는 것이 한국인 및 한국사회에 대한 만족과 등가(等價)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다. 그들은 자녀나 국적 등을 가짐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긍정적인 기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던 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집단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3. 외국인 정책 수용에 있어서 집단별 차이

다음은 차별(배제)-동화-다문화 모형으로 구성된 외국인 정책을 수용하는데 있어 이주 여성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6>참고).

먼저, 동화와 다문화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차별/배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후술하게 될 결혼이나 자녀유무와 무관하지 않다. 즉 나이가 어릴수록, 학생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체류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 선호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정책이든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많을수록 기혼의 유자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책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모형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최병두·김영경, 2011; 원숙연, 2012).

비슷한 맥락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아이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다문화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원숙연, 2012). 사실, 이주여성에게 있어서 혼인이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 현실의 기반구조이고, 이는 단순한 체류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필요로 한다. 특히 다문화정책의 경우, 차별/배제나 동화에 비해 훨씬 전향적이고 외국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즉 동화는 이주 외국인이 한국에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다문화는 이주 외국인의 다양성이나 권익의 보호라는 보다 적극적인 부분이 반영된 정책내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이가 있는 경우, 자녀의 미래에 대한 심정적 고려가 불가피하다. 현재 자신은 소수자로서 차별을 감수하고 있지만, 자신의 아이는 '준 한국인'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권익이 개입된 다문화 모델에 대한 선호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한편, 동화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동화에 대해서는 집단과 상관없이 일정한 요구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동화모형의 정책내용이 한국에의 적응을 주로 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습득과 적응은 결혼유무나 국적과

상관없이 절대절명의 요구로서 특정한 선호의 차이가 반영될 필요가 없는 영역임을 재확인 해준다. 본 연구결과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주 외국인 여성 중 기혼자로서 자녀가 있는 여성 및 한국국적 취득한 여성은 다문화 모형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차별·배제 모형에 대한 선호도 높다는 점이다. 사실 이 두 모형은 상호배타적인 측면이 있어서 한 쪽이 높으면 다른 쪽이 낮은 형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의 자녀가 있고 국적이 있는 외국인 여성의 경우는 이 두 모형에 대한 선호가 동시에 높은 모순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모순적인 결과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하나의 설명은 이중적 정체성(dual identity)이다. 즉 기혼의 자녀가 있거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은 내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외국인으로서 정체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자신이 이주자이지만, ‘한국인의 피를 받은’ 자녀를 생산하였고, 국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외국인과는 별도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설동훈 외, 2006). 결혼이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경우 자신이 한국국민(32.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신이 출신국가 국민(25.5%)이라는 비율보다 높고, 자녀에 대해서는 이 비율이 67%로 압도적으로 높다. 즉, 자신을 한국인으로 집단화하여 다른 외국인과는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차별/배제의 정책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인’과 비교해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차별받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의 권익에 대해서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외국인의 권익이 중시되는 다문화 모형에 대한 선호 또한 높게 형성되는 이중성을 보이게 된다.

〈표 6〉 외국인 정책 수용에 대한 집단별 차이

구분		차별배제		동화		다문화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연령	20대	3.4402	1.288	3.8653 a)	6.431**	3.7210 a)	7.214**
	30대	3.6829		4.2340 b)		4.1313 b)	
	40대 이상	3.6119		4.0357 b)		3.9571 b)	
소득	100만원 미만	3.4464	.506	3.9554	1.179	3.8482	2.212
	101~300만원	3.6164		4.1132		4.0188	
	300만원 초과	3.5790		4.0161		3.7581	
학력	고졸이하	3.5946	1.105	3.9597	.511	3.8889	.955
	전문대졸	3.6487		4.0833		4.0684	
	대졸	3.5433		4.0615		3.8577	
	대학원졸 이상	3.1818		4.0947		3.7841	
한국 거주 기간	1년미만	3.2600	1.165	3.8472	1.896	3.6750	2.169
	1년이상 3년미만	3.4598		3.9018		3.7292	
	3년이상 5년미만	3.6132		4.1579		4.0132	
	5년이상10년미만	3.5748		4.1195		4.0047	
	10년이상	3.8229		3.8958		4.0000	
출신 국가	중국계	3.6619 b)	4.709**	4.1369 b)	8.684***	3.8869a)	5.127**
	몽골	3.0619 a)		4.084 b)		3.8393a)	
	베트남	3.8443 b)		4.2170 b)		4.2154 b)	
	필리핀	3.6205 b)		3.6216 a)		3.6339 a)	
	기타	3.7167 b)		4.5370 b)		4.1944 b)	
한국 거주 목적	학업	3.3000	4.379	4.0283	.858	3.8066	1.059
	취업	3.0667		3.9886		3.8068	
	결혼	3.7465		4.0020		3.9805	
	기타	3.4941		4.2794		3.7843	
결혼 여부	미혼	3.3130	-2.330*	3.9891	-.458	3.6196	-3.190**
	기혼	3.6115		4.0419		4.0020	
자녀	있음	3.6675	-2.385*	4.0578	-.909	4.0221	-3.416**
	없음	3.3178		3.9692		3.6724	
한국 국적	있음	3.7514	-2.106*	4.0714	-.778	4.0704	-2.377*
	없음	3.4387		3.9916		3.8177	

\*p<.05, \*\*p<.01, \*\*\*p<.001 사후분석(Scheffé):a<b



## VI. 결론: 연구의 함의

한국에서 인종적 다양성이 확대되기 시작한 역사는 일천(日淺)하지만, 그 속도와 정도의 압축성은 역사의 일천함을 무색하게 할 정도이다. 그러한 압축성의 중심에 외국인 이주 여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부의 개입인 외국인 정책 또한 이주 여성에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즉 이들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정책대상자인 것이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정책대상자로서 이주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삶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는 동질적인가? 본 연구는 새로운 정책대상인 외국인 여성 집단 그 안에 또 다른 하위집단이 존재하고, 각각의 하위집단은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를 점하게 되고, 그 다른 위치는 다른 삶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인식의 지형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내적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주 외국인 여성’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논의할 경우,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정책대상자로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이주 외국인 여성의 배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준(변수)에 따라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하위 집단이 한국인을,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내용에 대한 선호의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220명의 이주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있는 논제를 발견하였다.

첫째, 이주 외국인 여성 중 국적이 있는 집단이, 국적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자원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식한다. 원래 자원스트레스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대와 연결되어 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더 높게 인식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는 가볍지 않다. 결국, 국적이 있는 이주 여성의 경우, 국적이 없는 여성과 비교해 한국 및 한국에서의 (경제적)삶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때 자신들의 삶을 다른 외국인 여성이 아닌 다수집단인 ‘한국여성’과 비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불가피하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높은 수준의 자원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악순환은 국적획득을 통해 한국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더 부정적인 집단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입안자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 여성 중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적이 있는 경우, 한국의 차별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한국사회의 차별정도를 낮게 인식한 것의 함의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기대와 현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혼을 목적으로 한 여성,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적이 있는 여성의 경우는 자신들을 ‘준 한국인’으로 자리매김(positioning)함으로써, 내집단 선호(ingroup preference)가 발동한 결과 한국사회의 차별정도를 낮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내집단 선호는 일종의 기대감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갖는 차별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기대감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요소라는 점, 그리고 동시에 주관적 기대가 현실의 차별정도가 낮다는 것과 등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원스트레스에서 본 것처럼, 이들의 기대에 우리사회가 부응하지 못할 경우, 더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사회가 왜 이주 외국인(여성)을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하는 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본 연구결과가 던지는 특히 의미있는 논제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수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주 외국인 여성 중 기혼자로서 자녀가 있는 여성 및 한국국적 취득한 여성은 다문화 모형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차별·배제 모형을 선호하는 역설적 경향성을 보인다. 상호배타적인 두 모형에 대한 선호가 동시에 높은 것은 이들 외국인 여성집단이 다른 외국인 여성집단과는 달리 ‘이중적 정체성’(dual identity)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다른 이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러나 한국인에 대해서는 ‘이주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모순적인 정책선호를 동시에 갖는 역설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흥미롭게도 이주 외국인 여성 중 기혼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출신국보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보다 강하게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 역시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사실, 이중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주로 결혼이주 여성의 자녀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요소이나(설동훈 외, 2006; 설동훈·윤홍식, 2008; 김혜미 외, 2011), 본 연구를 통해 이를 이주여성에 대한 논의에도 확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인종적 다양성에 근거한 다문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이주 외국인 여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한 연구가 우리사회에서 ‘이주’와 ‘여성’이라는 쟁점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이론적인 천착과 실천적 대안의 모색에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주류집단 대 소수집단, 내국인 대 외국인, 또는 이주여성 대 이주 남성이라는 집단 간(between groups) 차이라는 양자구도를 벗어나, 이주여성집단 내(within a group) 차이를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길 바란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정책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러한 이해에 기반한 적실성있는 정책형성에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바람이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현실적 어려움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설문대상자의 출신국가가 한정적이고, 체류목적에 있어서 결혼, 취업, 학업 등의 분포가 고르지 못한 부분도 분명 한계이다. 또한, 실증적 연구를 뒷받침하고, 결과의 해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심층인터뷰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된다. 향후 보다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가 극복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숙희.(2008),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행에 따른 접근방안 모색: 한국인과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1): 213-234.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0): 319-359.
- 김금미.(2010), 대학생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 검증에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259-283.
- 김경주.(2010),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정책방향, 「한국자치행정학보」, 24(2): 144-166.
- 김남국.(2005), 심의 다문화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한국정치학회보」, 39(1): 87-108.
- 김민정 외.(2006),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민정.(2011), 국제결혼과 한국 가족의 부계적 성격, 허라금 엮음, 「글로벌 아시아의 이주와 젠더」, 257-279. 광주: 도서출판 한울.
- 김비환.(2007),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법철학연구」, 10(10): 317-348.
- 김상학.(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통권(7): 169-206.
- 김선미.(2009), 이주·다문화 실태와 지원사업 분석: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시민사회와 NGO」, 7(2): 189-228.
- 김이선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정치학, 「경제와 사회」, 70호: 10-37.
- \_\_\_\_\_.(2009), '사랑'의 이주?: 국제결혼 베트남 여성의 결혼 이주 과정, 김영옥 외,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1-43.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_\_\_\_\_.(2010), 결혼이주 여성의 가정(home)만들기, 이소희 엮음, 「다문화사회,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95-123. 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 김혜미 외.(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차별경험과 심리적 적응: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1): 117-149.
- 김혜숙.(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33.
- 김혜순.(2006),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과 결혼이주여성: 적응과 통합의 정책마련을 위한 기본  
전제들,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용역과제 06-8」, 47-78.
- 김화순.(2010),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에 대한 인식, 「통일과 평  
화」, 2(2): 76-110.
- 박경규·오아라.(2008), 임금비교 대상으로서 준거집단 선택의 결정요인, 「한국경영학회통합학  
술발표논문집」, 1-40.
- 박수미 외.(2004),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수용성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박순희.(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문화적응태도의 매  
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6(1): 89-109.
- 박진경·원숙연.(2010),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한국행정  
학보」, 44(3): 191-21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3. 7)」.
- 서운석.(2011), 한국인의 국내 거주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인정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다  
문화와 평화」, 5(2): 32-62.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방안」. 보건복지부.
- \_\_\_\_\_.(2010), 「2009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설동훈·윤홍식.(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  
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편. (2010), 「한국종합사회조사」.
- 송미영.(2010),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분석, 「민족연구」, 41: 74-97.
- 안전행정부.(2013), 2008-2013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현황 5개년 자료.  
<http://www.mospa.go.kr/ft/a05/policyDataHome.do>(검색일: 2013. 9.20)
- 양인숙·김선혜.(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  
제연구」, 34(1): 237-266.
- 오정은 외.(2011),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 IOM 이민정책연구원.
- 원서진·송인욱.(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문화적응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6(2): 95-113.

- 원숙연.(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29-49.
- \_\_\_\_\_.(2011a),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4): 561-589.
- \_\_\_\_\_.(2011b), 인종적 소수자를 위한 다문화정책 수용성의 영향요인: 적극적 조치와 불법이민자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4): 327-351.
- \_\_\_\_\_.(2012), 수렴 혹은 발산?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시민-외국인이주자 간 인식의 지형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1(2): 245-272.
- 원숙연·박진경.(2009),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3): 201-224.
- 유명기.(2006), 소수자, 그 무적(無籍)의 논리, 최협 외 엮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9-20. 파주: 한울 아카데미.
- 윤상우·김상돈.(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91-117.
- 윤인진·송영호.(2007), 한국인의 소수자 및 다문화 관련 태도의 비교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857-868.
- \_\_\_\_\_.(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 윤형숙.(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외 엮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321-349. 파주: 한울 아카데미.
- 이병렬·김희자.(2011),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 「경제와 사회」, 통권(90): 320-362.
- 인태정.(2009), 다문화 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3(2): 339-369.
- 전기택 외.(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전영자·전예화.(2010),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1-13.
- 전영평 외.(2010), 「한국의 소수자 정책」.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차용호.(2009),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의 관계성 및 연계방안 연구: 결혼이민자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3(1): 165-200.
- 최병두·김영경.(2011), 외국인 이주자의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인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4): 357-380.
- 통계청.(2013),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한건수·설동훈.(2006),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한승준.(2008),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3): 463-486.
- 황미혜.(2011), 결혼여성 이민자의 인권문제와 사회통합 복지방안연구, 「다문화와 평화」, 5(1): 1-28.
- 황정미 외.(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성필.(2007), 국제인권과 결혼이주(Marriage Migration), 「저스티스」, 96(2): 27-42.
- Allport, G.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Addison-Wesley.
- Alexander, J.(2001), Theorizing the ‘Modes of Incorporation’: Assimilation, Hyphenation, and Multiculturalism as Varieties of Civil participation, *Sociological Theory*, 19(3): 237-249.
- Banting and Kymlicka(eds.).(2006),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Oxford.
- Bogardus, E, S.(1933), A Social Distance Scal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17(Jan-Feb): 265-271.
- Breugelmans, S. & Vijver, F.(2004), Antecedents and Components of Majority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ism in the Netherland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3(3):400-422.
- Castles, S. & Mark J. Miller.(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3rd Ed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De Guzman, Odien.(2011), *Itinerant Lives, the ‘Family’ and the emotionality of Overseas labor Migrant: A Philippine Case*, 허라금 엮음, 「글로벌 아시아의 이주와 젠더」, 182-206. 파주: 도서출판 한울.
- Deaux, K., Reid, A., Martin, D. & Bikmen, N.(2006), Ideologies of Diversity and Inequality: Predicting Collective Action in Groups Varying in Ethnicity and Immigrant Status, *Political Psychology*, 27(1):123-146.
- Dodd, C. H. (1982), *Dynamic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Brown Co.
- Esses, V. M., Jackson, L. M. & Armstrong, T. L.(1998), Intergroup competition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An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699-724.
- Espenshade, T. & Hempstead, K.(1996), Contemporary American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2(3): 189-224.
- EUMC(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2005), Majorities' Attitude toward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
- Hartmann, D. & Gerteis, J.(2005), Dealing With Diversity: Mapping Multiculturalism in Sociological Terms, *Sociological Theory*, 23(2): 218-240.

- Hochschild, Russell.(2002), "Love and Gold." in Ehrenreich, B. and A.R. Hochschild. eds.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New York: Metropolitan Books.
- Inglis. C.(1996), *Multiculturalism : New Policy Responses to Diversity, MOST Policy Papers 4. UNESCO.*
- Jackson, J., Brown, K., Brown. T. & Marks, B.(2001), Contemporary Immigration Policy Orientations Among Dominant-Group Members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31-456.
- Larzarus, R.(1984), On the Primacy of of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9(2): 124-129.
- Martiniello, Macro.(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윤진 역(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파주: 도서출판 한울.
- Macklin, Audrey.(1999), Women as migrant: members in national and global communities, *Canadian Woman Studies*. Downsview: Fall, 19(3):24-31.
- Quinton, W. & Major, B.(1997), Prejudice perception: The effect of group identification and the peception of justice, *Paper presented at the colloquium of UCSB.*
- Ruggiero, K. M. & Taylor, D. M.(1995), Coping with discrimination: How disadvantaged group members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826-838.
- Zajonc, R.(1984), On the Primacy of Affect, *American Psychologist*, 39(2): 117-123.

## ABSTRACT

### Immigrant Women as a 'New' Policy Target Group and Their Perception of Koreans and Korean Society: A Focus on Perceptual Differences

Sook-yeon Won and Hana Jeong

Considering the multi-cultural trend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asks whether the perception of immigrant women in Korea, as a 'new' policy target group, is homogeneous towards reality. This question brings the issue to the focal point, given that there are internal variations among immigrant women, facing different realities and experiences that lead to different perceptions. Bearing this context in mind, this study classifies immigrant women into subgroups based on various standards such as purpose of immigration, length of stay, marital status, number of children, and home country. Perceptual differences regarding resource stress, social discrimination, social distance toward Koreans and Korean society, and preference for immigrant policies are empirically elucidated by subgroup, with several findings. First of all, immigrant women within naturalized groups show a high level of resource stress in comparison to those who within non-naturalized groups. This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relatively high expectations of naturalized women. In other words, naturalized immigrant women have higher expectations for (economic) life in Korea, comparing themselves to majority Korean women. This comparison leads to a perception of relative deprivation of available resources. Second, contrary to resource stress, naturalized as well as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children show lower level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by Koreans. This is partly related to in-group preference. That is, they locate themselves as 'quasi-Koreans.' Next, regarding public policy preference, naturalized married women exhibit the contradictory tendency of preferring both the multicultural model and the discriminatory/exclusive model immigrant policy models at the same time. This contradiction seems to be driven by the 'dual identity' these women have, with a 'quasi-Korean' identity compared to other immigrants and, at the same time, an identity as 'immigrant foreigners' compared to Korean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depth.

【Keywords: Immigrant Women, Resource Stress,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Social Distance, Immigration Policy】